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준) 결성 기/자/회/전

- 지역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라 !
- 정부의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을 촉구한다 !

■ 일시 : 2008년 12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자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청소년경제교육원,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충남대학교 총학생회(건), 한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이상 30개 단체 이상 가나다순)

등록금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사회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표인사

2. 경과보고

- 12월 1~10일 대전지역 등록금대책기구 준비를 위한 대학, 단체 간담회제안
- 12월 12일 대전지역 등록금네트워크준비를 위한 1차 회의 진행
- 12월 15일 대전등록금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2차 회의 진행
- 12월 16일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

3.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1) 조직구성

① 공동대표

- + 김경희(대전여민회 대표)
- + 김영호(대전교육연구소 소장)
- + 윤해강(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

② 공동집행위원장

-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③ 집행위원

- + 각 단체 및 학교별 1인

2) 이후 활동계획

① 대전 등록금네트워크 결정 및 대전지역 등록금 동결 및 대책추구 기자회견

- 일시 / 12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교육청 기자실

② 등록금 학교

- 일시/ 12월 18일(목) 오후 1시 ~ 5시
- 장소 / 한남대학교
- 내용 / 전국 등록금넷 활동현황, 등록금대안 설명회, 대학 회계분석 방법 강연 등

③ 대전지역 대학별 회계 실태조사 및 등록금 시민의식 설문조사

- 대학별 회계 실태조사 / 12월 23 ~ 1월 둘째주까지
- 설문조사 / 12월 23 ~ 1월 둘째주까지
학부모 500명, 대학생 1500명, 등록금가계부담 설문 진행

④ 등록금문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내용 / 각 학교별 회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기초로 등록금 현황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진행
- 일정 / 2월 중순 ~ 5월까지
- 장소 / 대전지역 각 대학

⑤ 대시민 홍보 및 대학별 선전진행

- 내용 / 사립대 등록금 동결촉구 및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전 진행
- 일정 / 12월 중순 ~ 5월까지
- 장소 / 으능정이거리 등 시내일원, 각 대학 캠퍼스

⑥ 전국등록금넷과 연대활동 진행

- 등록금 관련 법 제정 및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진행

<창립결성문>

지역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등록금 천만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건 이제 기사거리도 못 될 지경이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하는 학생은 늘어만 가고 고이율의 학자금대출은 이자를 갚지 못해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사회의 첫발을 딛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대전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상승은 이미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정보알리미’에 의하면 대전지역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은 연간 약 730여만원, 국립대는 연간 400여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40~50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4,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사립대의 경우 가계수입의 16.2%를, 국립대는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19개대학 중 16개 대학이 사립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올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전국의 4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건양대와 충남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대전 지역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대전지역의 사립대학들도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자세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사적인 동결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지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가계수입이 감소 또는 동결된 가계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느끼는 대학등록금 동결은 동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대학생을 둔 가계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OECD 국가의 고등교육 부담비율 78.1%의 1/3수준인 15.0%의 야박한 지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대학 등록금은 더 이상 대학과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투자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나 후불제, 소득연계형 차등제 등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등록금 네트워크는 우선 대전지역의 사립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그들의 학부모와 연대하여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정당한 액수를 징수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엄중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본질적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지역사립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라 -
- 정부의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을 촉구한다 -

2008. 12. 12.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준)